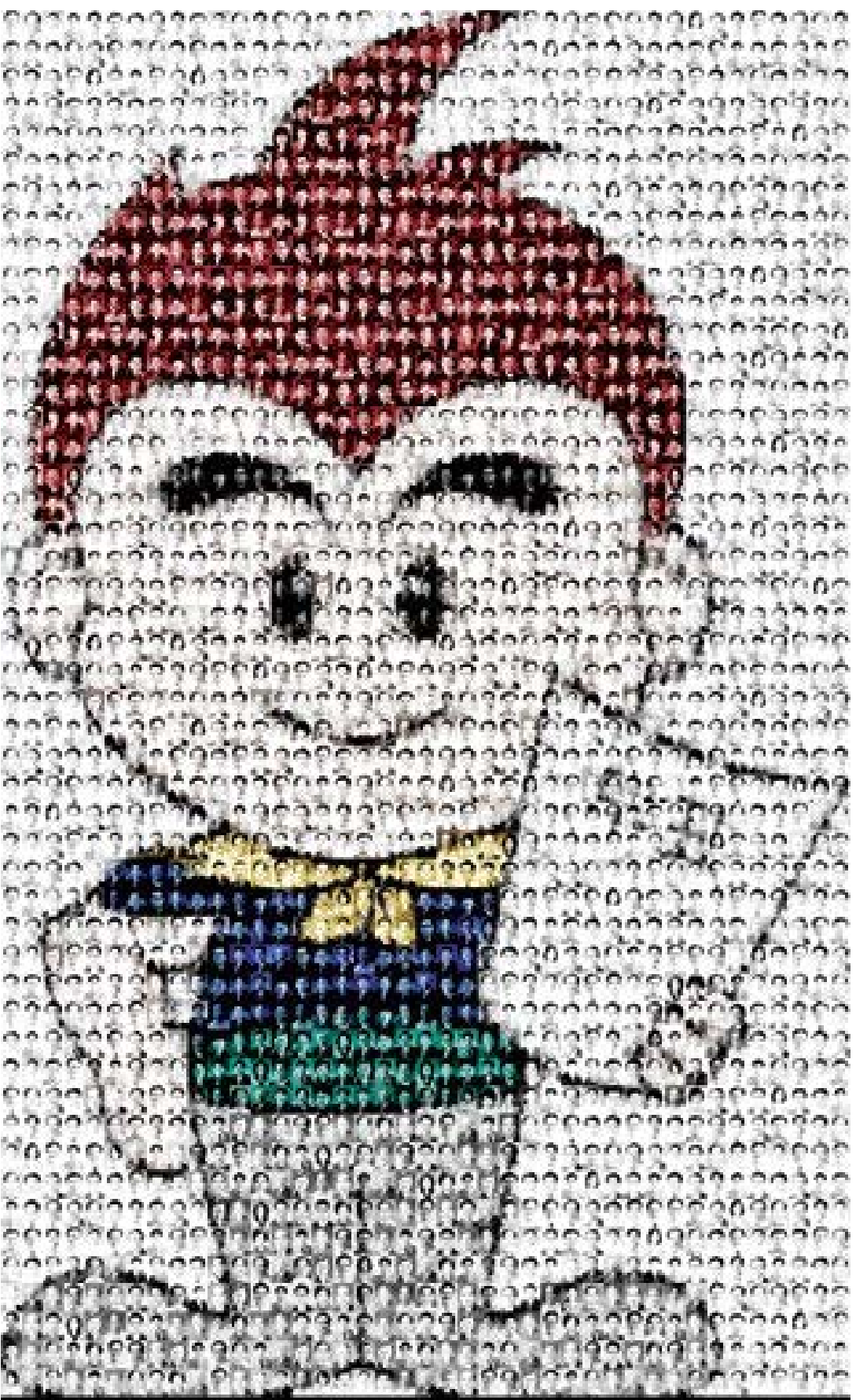


## 오늘 지방선거 선택의 날

광주·전남 후보 324명의 얼굴로 만든 마스크트 '공명이'



"내 고장 발전을 위해 꼭 투표합시다." 광주일보가 제작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스크트 '공명이'도 투표 독려에 나섰다. 광주일보는 5대 동시 지방선거일 하루 전인 1일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기초의원 후보를 제외한 광주·전남지역 후보 324명의 사진을 모아서 '공명이' 모습을 디지털 모자이크로 만들었다. 일부 후보의 사진은 중복돼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고장 살림 맡을 일꾼 뽑는 날 광주일보가 제안합니다

## 우리 세금 절반쓰는 단체장 잘 따져보고 꼭 투표합시다

앞으로 4년, 아니 10년 이상 우리 고장의 미래를 좌우할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광주·전남에서 471명의 내 고장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유권자마다 광역시장과 도지사에서 시·군·구의원, 교육감에서 교육의원까지 모두 8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2·3·4·5·6면> 12년 전인 1998년 6월4일 2대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함평군민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함평 유권자는 이석형 후보를 군수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수는 '나비'라는 생동감은(?) 테마를 축제로 연결, 함평을 나비 축제의 고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쟁을 뒤로하더라도, 올해 열린 12번째 축제까지 누적 관람객은 무려 125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천연자원·산업자원·관광자원 중 아무 것도 없는 '3무의 땅' 함평이 희망의 땅으로 변했으며 그는 3선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화순·해남·순천 등에서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채운 기초단체장이 드물었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도 각종 비리로 중도사퇴한 단체장이 즐비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유권자는 이에 둔감합니다. 재보궐선거를 일삼으며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도 하차한 단체장 대신 대리인이 나서도 당선됩니다. 책임은 단체장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한 유권자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시장·군수를 바꿀 것이 아니라 유권자를 바꿔야 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겠습니까. 유권자 여러분, 이제는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합시다. 특히 기초단체장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내 고장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광주·전남에만 27명이 있고 광역단체장과 함께 우리가 낸 세금의 절반을 주무룹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 광역단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투표소에 가기 전에 가족이 마주 앉아 간단한 토론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서로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보를 교환하고 어떤 선택이 내 고장을 살찌우고 후손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줄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물자마 투표'는 하지 마시다. 혈연·지연·학연·정에 얽힌 투표도 안 됩니다. 금품과 향응에 의한 투표는 더 더욱 최악의 '소통령'을 만듭니다. 막연하게 이름을 안다고, 약속 한번 더 했다고, 얼굴을 안다고 표를 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됨됨이를 간간하게 살펴야 합니다. 전과는 없는지, 있다면 무슨 내용인지, 당 공천은 어떻게 받았으며 못 받았다면 그 이유는 뭔지, 재산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모았는지,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십시오. 또 중앙 정치에 현혹되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그래야 거대 정당이 지역주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당선시키든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표를 쥐서,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략적 투표'도 고려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쁜 정치인이 뽑히도록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박지경기자 jkpark@

## 전국 13,388곳 투표 일제 실시...자정계 당락 운곽

내 고장 일꾼을 뽑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일 오전 6시를 기해 광주·전남지역 1215개 투표소를 비롯한 전국 1만338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를 비롯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7명(광주 5명·전남 22명), 광역의원 79명(광주 19명·전남 51명·비례대표 9명), 기초의원 352명(광주 68명·전남 243명·비례대표 41명), 광주시, 전남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9명(광주 4명·전남 5명) 등 총 471명을 동시에 선출하게 된다. 선거 사상 최초로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6명·기초단체장

228명·광역의원 680명·기초의원 2512명·광역의원 비례대표 81명·기초의원 비례대표 376명·교육감 16명·교육의원 82명 등 총 3991명을 선출한다. 여야 각 정당과 무소속 후보 등 광주·전남지역 출마자는 총 964명(광주 242명·전남 722명)으로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국 출마자는 1만200명으로,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광주·전남에서는 257만9815명이 투표하게 된다. 당락의 운곽은 경합지역이 아닌 시·도지사와 일부 기초단체장의 경우 자정계면 운곽이 드러나고, 기초·광역의원은 자정 전후에 대략 드러날 것으로 선

관위는 예상했다. 최종 집계는 신안과 여수 등 섬이 많은 지역을 제외하면 3일 새벽 3~4시에 완료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투표하기 좋은 날

광주·전남 대체로 맑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차례 소나기가 예상되지만, 투표하기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2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늦게부터 구름·순천·곡성·보성 등 일부 지역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다"며 "오전 한때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고 1일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15도, 낮 최고기온은 21도~27도 분포를 보이겠다. /양수현기자 yang@

## 월드컵 최종 엔트리

### 태극전사 23명 확정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대표팀의 최종 엔트리 23명이 확정됐다. 이동국(전북)이 최종 명단에 포함돼 12년 만에 월드컵 출전 꿈을 이뤘으나 이근호(이와타)와 신형민(포항·구자철(제주)은 탈락, 귀국길에 올랐다. <관련기사 18면> 또 지난해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 8강 진출의 주역이었던 공격수 이승철(FC서울)과 김보경(오이타)도 허정무호에 합류했다. 허정무 감독은 1일(한국시각)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트 카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 참가할 국가대표 최종 명단 23명을 발표했다. 대표팀은 2일 오전 7시까지 국제축구연맹(FIFA)에 최종 엔트리를 제출하고 5일 결전의 땅 남아공에 입성한다. /서승원기자 swseo@

익교실립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를더로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내 가슴엔 핑크리본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10년을 이어온 핑크리본 캠페인  
세대와 세대를 이어 달리는 감동적인 축제의 장에서  
핑크리본의 광원 의미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2010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일시 2010년 6월 20일(일) 오전 8시 30분  
장소 광주 월드컵경기장  
종목 10km/5km  
참가비 일반 1000원 (학생 500원)  
기입금 K-SWSS 777-3333  
참가신청 홈페이지 접수 www.pinkribbon.or.kr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222-5756  
주최 한국건강관리협회  
주관 AMORE PACIFIC